

어떤 과정이었던 어떤 결과였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번 5.31 지방자치 단체 선거 과정이나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 여당의 완패’ ‘한나라 당의 싹쓸이’로 표현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수많은 분석과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주로 현 정권 구성원의 독선과 오만, 저급한 통치 스타일이나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미추얼리즘, 경제경기 정책 등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정치 행태에 대한 지적이 많다. 맞는 말이다. 여권에서도 이점을 처음으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그동안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한국의 민주적 선거문화에 새로운 경험과 반성을 더해 주고 있음도 살펴야 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선거 판은 혼탁하고 부패와 부패의 온상이었다. 어느 선진 민주국가이든 초기 민주주의 단계에서 겪었던 과정을 우리도 겪었을 뿐이다.

지금 한국에 그런 후진국적 선거문화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름대로의 선거법 개정이나 높아가는 민도가 후진 문화를 추방해 온 셈이다. 대신 정치권은 아비합과 교활함, 흑색선전에 편 가르기, 저질적 발언 등으로 새로운 진흙탕을 만들었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선동 정치에 맞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놀랍고 두려운 민심

들이기 시작 했다.

집권여당이 석권했던 2004년 총선은 ‘탄핵’이라는 아담의 극단 대응을 역이용, 국민정서를 자극하여 얻어낸 결과였다. 국민정서가 정치권에 의해 한번 크게 흔들린 것이다.

한때 정치인들이 ‘국민정서가 가장 무섭다.’고 한 적이 있다. 정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 판단에는 정서보다 냉정한 이성 이 더 필요하다.

극단은 극단을 불러온다. 지난 총선과 이번 지자체 총선의 출렁현상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리

듬,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버스 승객의 좌우 흔들림과 비교해 보라.

한나라당의 압승은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압승’이라는 것도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놀랍고 두려움.’은 한나라당의 압승 반응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초 우리는 극단이나 선동의 결과에 대한 큰 경험과 여기에 대한 얼마간의 항체를 키워줄 것이다. 한편 극단을 경계하는 ‘중도’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 보게 된다.

정치인들이나 국민이 극단을 버리거나 극단에 휩쓸리지 않고 중도를 찾았다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 날 리도 없다.

민주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민주화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화의 질은 정치권이나 국민의 정신적 차원이 만들어 낸다.

오랜 역사 속에 우리가 간직해온 ‘중도’나 ‘팔정도’는 정신적 차원을 고양시키는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분열과 증오 등 이 시대 고질적 증상을 화합으로 치유하는 약재로도 이만한 것이 없다.

중도란 극단과 극단 사이에 자리한 고요하고 깨어있는 마음 상태로 만약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만 있다면 여기서 확장된 통찰력으로 당면 문제들의 본질을 냉정하게 짚어 보고 그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도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쉬운 경지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적어도 정치인이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신적 차원을 높이기 위해 ‘중도’를 정치의 이상적 목표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오늘의 진흙탕 속에서 그런 연꽃을 키워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기고

‘절’ 바로 알고 바로 하자

부처님당시에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나서 부처님의 발아래 예배하고 왼쪽으로 둘러앉아 있는 것이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인도에서는 수행자나 성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상례로 된다고 했다.

티베트불교에서는 전신 전면오체부지(全身前面五體投地)로 시행되고 있다. 말하자면 합장(合掌)이나 오체부지(五體投地) 예경의 형태는 인도의 것이라는 점이다. 합장 예배는 우리나라에도 불교교단에 흡수되어 제정화 되었다.

‘우리나라 불교전래 160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민족은 오체부지로 절하기도 하지만 본래 생활화하고 있던 일반적인 예배법을 사용했다. 여인들은 보다 더 장엄한 몸짓으로 예배 했었다.’ <불교예수 3권>

열 사람이 부딪칠 정도로 양쪽 팔을 크게 벌려 아래에서 위로 휘감아 원을 그리면서 내려서 합장한 채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의 고유한 전통적인 신불에게 드리는 절(拜)이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불교인들이 외국의 여러 나라에 왕래한 이후에 종전과 다른 새로운 모양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절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변형되기 시작 것이다. 그것이 예배하고 나서 양손을 뒤집는 모습이다.

양부(仰俯)의 자세라고 하나, 탄 소일 뿐, 지금은 신도 법요집과 사찰의 신도교육지도 지침서에서까지 수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스리랑카 미안다 인도와 티베트 태극 중국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예배행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큰 법당에서 예배할 때 손동작을 보면 1960년

대 이전에 불자가 되었거나 모태신앙이었던 신도의 손 모습은 일반적인 전통적 절할 때 모습이 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불자가 된 분들은 손을 귀를 감싸거나, 귀 위로 바로 세우거나, 아니면 머리위로 두 손바닥을 치켜세우는 분도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성스러운 종교의식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예절마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질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손동작을 하고 절하는 것은 일본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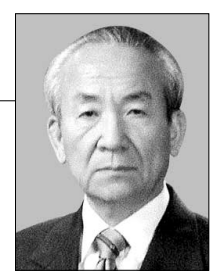
스님에게는 1배로 상호교례를

佛前에만 3배... ‘손바닥 들기’ 우리 전통 아니야

에게서 볼 수 있다. 친일(親日)이나 왜색(倭色)이니 하면서도 정작 고칠 것은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를 조금 안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북혜양족(福慧兩足)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일축해버리는 실정이니 말이다.

또, 예배문제중에 세 번 하는 절에 대한 것. 많이 절하는 다배(多拜) 관행 및 재(齋)를 올릴 때 절하는 횟수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내가 어릴때는 절에 가면 법당에서 세 번 절하는 것으로 여기고, 재(齋) 지낼 때는 영단(靈壇)에 두 번 배례(拜禮) 하는 것을 ‘정식’으로 여겨왔다. 역시 1960년대부터 스님께 세 번 절하



고 법당에도 세 번 절하는 특별한 형식이 전개 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노장스님들께 여쭈어보면 근래에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증언한다.

“1994년 10월 6일 조계종 개혁회의가 통도사에서 개최된 종단개혁 불사 보고대회 법어(法語)를 통해 종정(宗正)스님은 ‘승려사 신도가 큰스님에게 3배(拜)를 올려 인사하는 관행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3번 절하는 것은 불경(佛經)이나 불교의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며, 불전(佛前)이 아니라 절(拜)은 한번으로 그쳐야 한다고

스님에게는 1배로 상호교례를

佛前에만 3배... ‘손바닥 들기’ 우리 전통 아니야

했다. 그리고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 영가에 2번 절하면 되고, 집전하는 스님에게 절하는 것은 잘못’ <문화일보 기사/월하스님 대담/1994. 10. 8>이라고 밝히면서 이것부터 개혁하라고 권장 하였다.

다른 노장스님의 기록물을 살펴보자. “영단(靈壇)에 잔을 올리고 뒤돌아서서 절하지 말라. 집중하여 재를 지내는 스님을 신란하게 만드는 일이다. 살아계신 분에게는 1배를, 영단에는 2배를, 자기스승 제사날에는 3배를 해야 한다.” <법공양/우룡스님편>

이와 같이 권유하고 주장하신 원로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봉행해야 할 텐데도 어느 불교

종단에도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 민족적 자존심을 우리가 찾아 전통예절을 살리면서 새롭게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배(多拜)관행은 어떠한가? 불상을 향해 백팔배, 천팔십배, 3천 배 등의 관행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절에 가서 신도 되기가 힘들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고행자(苦行者)의 경우 실천의지에 따라 행할 수는 있지만, 붓다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구태여 왜 대중 불교사대에 절(拜)을 많이 하도록 강조하며 마치 붓다의 정법수행인양 자처하며 장광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다.

‘절(拜)하는 곳이 절(寺)이 아닌가, 절로 한다는 절을 함에 있어 무슨 기교가 필요했는가?’ ‘뒤집는 손바닥은 붓다의 북혜양족(福慧兩足)을 나타내지 않느냐’는 거짓 꾸며대기식 주장보다는 하루속히 본래 우리민족의 예배방식을 회복하여 경건하게 더 잡아 나아가길 바란다.

스님에게 3번 절하는 관행을 한번으로 회복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절하고 난 뒤 손바닥 뒤집는 형태도 국적을 찾아야 한다.

재(齋) 지낼 때 영단(靈壇)에 두 번 절하면 되고 다른 곳에 절하지 말라는 노장스님들의 말씀도 실천으로 옮겨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스님과 신도를 모두는 상호 교례(交禮)를 해야 할 것이다.

불자 모두는 삼귀의례(三歸依禮)가 있음을 생각하고 누구에게 절하는 공경스럽게 경배하고 존경해야 한다. 상호 교례를 하면 자신들도 각기 4부대중의 일원이기에 자신이 타인에게 예배할 은 내 스승에게 절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승속을 막론하고 우리 민족이 전승해온 우리 불자들의 절(拜)을 다시 개발하여, 절(拜) 절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원주(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강사)

불자의 눈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었다. 도쿄대로 건너간 약탈문화재 조선왕조실록 47책을 불교계의 조선왕조실록 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와 서울대의 노력으로 되돌려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귀한 문화재를 돌려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다.

약탈 문화재의 환수는 최근 텔레비전 방송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타이틀로 삼을 만큼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병인양요때 프랑스 군인들이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반환 협상에서 보았듯이 약탈 문화재의 환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협상은 1992년 7월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이에 비한다면 이번에 조선왕조실록을 되돌려 받은 일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환수위에서는 올 3월부터 도쿄대와 조선왕조실록의 환수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환수위가 협상을 진행

‘기증’과 ‘환수’의 차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5월 31일 서울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도쿄대로부터 조선왕조실록을 환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환수위가 배제된 채 올 5월 갑자기 도쿄대와 서울대간의 협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도쿄대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기증”한다고 표현하여 명분을 살리고, 서울대에서는 “환수”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실리를 챙기는 협약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약탈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자랑했고, 환수위에서는 약탈된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에 대해 반환이 아닌 기증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앞으로 문화재 환수에서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고, 도쿄대가 환수위와 협상 중에 제 3의 기관인 서울대를 태계해 된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이다. 명분을 강조하면 실리를 얻기 어렵고, 실리를 택하면 자칫 자존심의 손상과 역사왜곡으로 비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이다. 명분과 실리의 사이, 그 어디쯤에서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니온 발자취가 담긴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들에게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례자가,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519